

# 意識에 대한 사회학자의 挑戰

## 자연과학적 전망

저자가 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 과학도가 의식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식을 자연과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분명히 독자들에게 의아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회학자인 저자가 “의식에 대한 사회학자의 도전”이라는 저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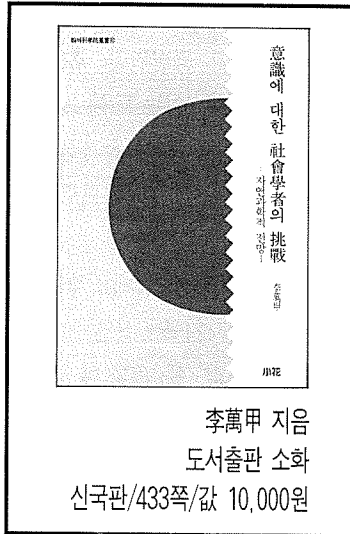
“한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은 지배계급의 바로 밑에 위치하는 주변집단(周邊集團)이다”라는 가설을 설정, 이것을 근간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논

한 저자는 이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 우선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어떤 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인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사람이 만족과 불만을 느끼는 것, 사람이 무엇에 매혹되고 혐오감을 갖게 되는 까닭, 그때 신체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특히 뇌는 그런 정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뇌와 의식의 관련성에 관한 본격적인 탐구에 진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인 고찰, 심리학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등에 관한 의식을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게 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8장 및 종장(終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의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진화에서는 사회학과 생물학,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생물학적 이론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다. 제2장 의식의 자연과학적 기초에서는 의식을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고찰해야만 의식의 본질을 옳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저자의 의식에 관한 과학철학적 견해와 물리학자가 보는 의식을 다양한 이론을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3장 인간의 뇌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신경회로망, 기능의 국재(局在)호르몬과 인간의 정신



활동 등을 다루고 있다. 이어 제4장에서도 신경생리학자들의 의식관을 뇌와 의식을 비롯하여 다루고 특히 의식에 대한 스페리의 견해를 다루고 있으며 에클스의 의식론에서는 의식과 의식경험, 지각과 의식, 자기의식과 자기의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5장 인간의 본성과 의식의 진화에서는 미국의 사회생물학자 윌슨과 영국의 비교행동학자 크룩의 학설을 중심으로 의식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6장에서는 정신과 인류의 진화를 다루면서 진화에 관한 라마르크, 다윈,

신다윈주의, 신라마르크주의 등 여러 가지 진화론을 도입하였고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 유전자·문화공존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정신의학자 앙리에의 의식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의식존재, 의식의 구조성 의식야(意識野), 자아 무의식 등이 그 내용이다. 제8장의 심리적 의식론, 의식의 정의, 의식연구의 발자취를 비롯하여 헵의 생리학적인 심리학의 시각에서 본 의식, 운슈타인의 의식의 두 양태와 그의 종합, 맨들러의 인지심리학에서 보는 의식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과학적인 시각에서 의식을 고찰하면서 물질과 정신의 관계, 인류의 정신작용의 특수성,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앞으로 사회의식(가체)을 연구할 계획을 세우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자기와 자기의식, 다음 단계로 민족의식, 계급의식, 역사의식, 종교의식, 미의식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할 것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심리학적 의식론까지 포함한 이 저서는 인문사회학도 뿐 아니라 과학도,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 내용을 담고 있다. ①7

朴澤奎 (건국대 교수)